

KIA, 주전 빠진 삼성에 첫 '루징 시리즈'

3연전 1차전 승리 후 2연패 시즌 8승 4패... 승률 0.667 필승조 전상현·최지민 패전 소크라테스·최형우도 침묵

개막 후 3연속 위닝 시리즈를 질주하며 신바람을 탔던 KIA타이거스가 선발 백정현과 주전 좌익수 구자욱, 주전 2루수 안주형이 부상으로 빠진 삼성라이온즈에 일격을 당했다. 시즌 첫 루징 시리즈는 물론 첫 연패까지 떠안았다.

KIA는 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3차전에서 3-7로 역전패했다. 앞서 2차전에서 4-7 재역전패, 1차전에서 5-2 승리로 1승 1패씩을 나눠가졌던 KIA는 이날 패배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이범호 감독은 이번 주말 홈 3연전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사령탑 데뷔 후 첫 루징 시리즈를 떠안았다. 또 첫 연패로 올 시즌 8승 4패(승률 0.667)를 기록하면서 4월 첫째 주를 NC다이노스(9승 4패·승률 0.692)에 밀린 2위로 마무리했다.

빠이픈 패배다. KIA는 KT위즈와 주중 3연전까지 개막 후 3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리면서 단독 선두를 질주해왔다. 시즌 초반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던 KIA



KIA타이거즈 최지민이 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3차전에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숨을 고르고 있다.

에게는 이번 시리즈가 장애물로 작용하게 됐다.

특히 연이틀 만원 관중 앞에서 연패에 빠지면서 안타까움이 더 크다. KIA가 호성적을 유지하면서 팬들의 열기도 달아올랐고 연이틀 전석 매진을 이룬 상황이었다. 챔피언스필드에 두 경기 연속 만원 관중이 들어찬 것은 지난 2018년 5월19-

20일 SK와이브스(현 SSG랜더스)전 이후 2149일 만이었다.

필승조가 경기력 난조를 겪은 것도 좋지 못한 요소다. KIA는 1차전에서 선발 윌 크로우가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뒤 광도규(0.2이닝 무실점)와 정해영(1이닝 무실점)만 소모했다. 이들 외에는 이준영과 이형범, 김건국이 이닝을 나눠가

지며 수비를 책임졌다.

하지만 2차전부터 필승조가 흔들렸다. 선발 등판한 윤영철이 4.2이닝 4실점으로 빠졌지만 이형범과 이준영, 광도규, 장현식, 최지민이 8회까지 4-4 접전을 유지시켰다. 그러나 9회초 마운드에 오른 전상현이 한 타자 밖에 잡지 못한 채 4피안타를 허용하며 3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

다. 3차전 역시 필승조에 아쉬움이 남았다. 선발 등판한 양현종이 이번 주 두 차례 등판에도 불구하고 6이닝 3실점으로 켈리타타트를 쳤지만 7회초 최지민이 실점을 허용했다. 1사 1루 상황에서 김현준의 안타에 유격수 박민의 포구 실책이 겹치며 비자책이 되긴 했으나 이 실점이 결승점이 됐다.

장현식 역시 좋지 못했다. 3-4로 뒤진 8회초 등판해 1사 후 김현곤에게 좌월 홈런을 헌납하며 사실상 추격의 동력을 잃었다.

이어 9회초에는 광도규가 연투로 휴식, 전상현 역시 전날 3실점 후 휴식하는 상황에서 김건국이 등판했으나 또 실점이 겹치며 2실점(1차책점)을 내줬다.

중심 타선의 침묵도 뼈아팠다. 소크라테스는 1차전에서 4타수 무안타에 그친 뒤 2차전에서는 1사 1루에서 대타로 투입돼 병살타로 고개를 숙였고, 3차전에서도 3타수 무안타에 머물렀다. 볼넷 1개를 얻어낸 것이 유일한 출루였고 3차전 3-4로 뒤진 7회말 2사 1-3루에서 루킹 삼진으로 기회를 놓쳤다.

최형우는 1차전에서 멀티히트로 활약했지만 2차전에서 4타수 무안타, 3차전에서 3타수 무안타 1볼넷에 머물렀다. 3차전 0-0으로 맞선 1회초 1사 1-2루 기회에서 2루수 앞 땅볼을 놓친 것도 아쉬웠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이정호 체제' 광주FC 첫 4연패 '쓴맛'

김천상무에 1-2패... "다시 시작"

광주FC가 이정호(사진) 감독 체제 첫 4연패에 빠지며 시즌 초반 부침을 겪고 있다. 수비 위주의 전술을 구사하는 팀들에 고전하는 모양새로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은 광주만의 색깔을 잃지 않겠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팬들 역시 믿고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광주는 지난 6일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상무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2로 역전패했다. 개막 2연승을 달렸던 광주는 이후 네 경기에서 내리 패하며 올 시즌 2승 4패(승점 6)에 머물렀다.

빠이픈 패배였다. 전반 6분 만에 가브리엘 티그라이이 절묘한 슈팅으로 수비하던 박승욱의 자책골을 유도했지만 전반 종료 직전 프리킥 상황에서 정치인의 헤더 동점골, 후반 13분 코너킥 상황에서 내준 페널티킥으로 정치인의 역전골까지 허용하며 세트피스 약점을 다시 노출했다.

광주는 이정호 감독 부임 후 최다인 4연패에 빠졌다. 2022시즌 K리그2에서는 아예 연패가 없었고 2023시즌 K리그1에서는 2연패가 최다였다. 무승 기록은 2022년 4경기(3무 1패), 2023년 7경기(3무 4패)였지만 승점 1점을 나눠 갖는 것과 아예 얻지 못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

오는 13일 전북현대와 7라운드 원정 경기에는 더 큰 과제도 안았다. 김경민과 안영규의 퇴장 출장 정지, 알렉스 포포비치(호주)와 변준수의 올림픽 대표팀 차출,



브루노 올리베이라의 부상 등으로 전문 중앙 수비 자원이 조성권과 김승우, 김경재 뿐이다.

하지만 이정호 감독은 "목심"을 강조했다.

이 감독은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필요하다"며 "더 노력해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아쉬워 했다.

다음 경기를 위한 준비 핵심을 공격으로 꼽았다. 실점을 주더라도 그 이상 득점할 수 있는 공격력을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전은 수비 공백이 큰 만큼 공격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 감독은 "자신감 문제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도전자 입장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무모하더라도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골을 먹더라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겠다. 광주만의 색깔로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팬들은 이 감독에게 확실한 지지를 보냈다. 원정길에 오른 100여명의 팬이 경기 후 버스에 오르는 선수들을 배웅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감독과 선수단 역시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었다.

한규빈 기자

광주체고, 체고대항 체육대회 57개 메달 획득

금 14·은 15·동 28개 수확 체조 문건영 2년 연속 5관왕

광주체육고가 제3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총 5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육고는 지난 4-6일 울산시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13개 종목 201명(선수 169·감독교사 11·코치 2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14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28개 등 총 57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이는 지난해 37회 대회(금 17·은 17·동 31개)보다 금메달은 3개, 총 메달수는 8개 적게 획득한 것이지만 올해 목표(금 10·은 6·동 21개)보다는 금 4개, 총 메달 수 20개를 더 획득한 성적이다.

이번 대회 광주체고가 획득한 메달은 체조에서 금 5·은 1개, 레슬링에서 금 4·은 3·동 5개, 태권도에서 금 2·동 6개, 양궁에서 금 1·은 1·동 2개, 육상 단거리 금



1·은 1·동 2개, 육상 도약 은 1·동 3개, 펜싱 금 1개, 핀수영 은 3·동 3개, 역도는 2·동 4개, 유도 은 1·동 2개, 수영 은 1·동 1개, 복싱 은 1개다.

특히 기계체조에서 문건영(3년)이 금 5개와 은 1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 지난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5관왕을 달성하

며 광주체고의 선전에 힘을 보탤다.

문건영은 기계체조 도마에서 14.450점을 획득,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평행봉과 철봉에서 각각 14.050점과 12.250점을 받아 각각 1위에 올랐고, 안마에서도 13.000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 3개를 추가했다.

링에서는 12.300점으로 1위 인천체고 윤한결(12.900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문건영은 링, 평행봉, 철봉, 안마, 마루, 도마 등 6개 종목 점수를 합산한 개인종합에서 78.200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해 5관왕을 달성했다.

육철수 광주체고 교장은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학교의 명예를 드높여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의 대회에서도 우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체육회 김가혜, 전국실업스쿼시선수권 준우승

여일부 결승서 엄화영에 0-3 패

광주시체육회 스쿼시팀 김가혜가 제8회 광주시장배 전국실업스쿼시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가혜는 지난 2-5일 광주시체육회관 스쿼시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부 개인전 결승에서 엄화영(인천시체육회)에게

0-3으로 져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가혜는 32강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16강전서 문혜연(전북스쿼시연맹)을 3-0으로, 8강전서 이보라(충남스쿼시연맹)를 3-0으로, 4강전서 안은찬(대구시정)을 3-1로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김가혜는 결승에서 엄화영을 상대로 1세트를 점전 끝에 10-12로 내주며 기선을

뺏겼고 2세트(8-11 패)와 3세트(7-11 패)에서도 고전하며 내리 패해 우승컵을 들지 못했다. 김가혜는 "우승을 차지하지 못해 아쉬지만 최선을 다한 경기여서 준우승도 만족하다"며 "앞으로 체력과 경기력 관리를 잘 해 남은 전국대회와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